

# 경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신경전

### 제주도-제주경찰청, 경찰법 개정 놓고 입장차 “도민 입장에서 사무 구분·기관 협업 이뤄져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가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경찰간 사무 분장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두고 도와 제주경찰청간 기관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상임

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해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협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타 시·도를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제주도의 경우 제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찰과 도의 명확한 사무 구분과 기관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 제주도와의 사전협의 자리가 없었다”며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4일 국가경찰과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경찰과 도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중요하며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

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구성단을 명시할 게 아니라 향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개정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담당 지역경찰은 예전과 같이 국가경찰·수사·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 특급호텔 여성사우나 외부 노출 소동

### 투숙했던 신혼부부 “우연히 밖에서 봤더니 사우나 내부 보여” 분통

서귀포시 한 5성급 호텔이 사우나 시설 외부 노출을 제대로 막지 않고 영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신혼여행차 제주를 방문해 새로 생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이틀간 투숙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해당 호텔 사우나 유리창에 미러코팅이 돼 있어 외부에선 내부를 볼 수 없고 내부에선 바깥의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라며 “그런데 마지막날 산책하다 사우나 쪽을 보니 외부에서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됐다. 사우나 내부 온도를 글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부부는 “본인이 이틀간 이용했던 저녁시간엔 블라인드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며 “호텔 직원 동행하에 확인 결과 호텔 입구, 산책로, 주차장, 객실 발코니 어느 각도에서도 사위실과 화장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박에 80만원 넘는 돈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호텔 측이 이런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호텔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해 미비했던 부분이 파악됐다”며 “상시 블라인드를 내려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고객과 함께 산관 모든 위치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찰 동행하에 CCTV 확인을 진행했고, 우려했던 노출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며 “앞으로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호텔 측은 “산관 사우나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돼 기상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블라인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호텔 스위트룸 여성 사우나·화장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로 돼 있어 이용자 알몸이 노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지난 13일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 특수 상해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자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씨는 지난 12월 2일 오후 6시54분쯤 집에 있던 흥기를 휴대하고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호텔 앞까지 찾아가 전화를 받고 로비 입구로 나와있던 A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흥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바다 쓰레기에 갇힌 회색기러기 16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길잃은새'로 알려진 회색기러기 한마리가 바다에 동등 떠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자씨는 검찰조사 결과 지난 2018년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체류하며 공사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못받게 되자 사건 당일 A씨와 체불임금 문제로 인정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통 임신부 경비함 이송

조기산통을 호소하던 임신부가 해경 경비함을 통해 긴급이송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1분쯤 추자도 보건지소에 36주된 임신부가 조기산통을 호소하며 제주시내 병원진료를 긴급 요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중인 경비함을 급파, 추자 신앙항에서 임신부와 보호자를 탑승시킨 후 오후 3시25분쯤 제주항에 도착해 대기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절반은 이륜차

작년 331건 발생 17명 숨져  
전년과 비교할때 갑절 ↑  
전체 사망운전자는 38명

지난해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치경찰청은 배달 대행업체에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331건으로 2019년 402건 대비 71건(17.7%)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7명으로, 2019년 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38명 중 44.7%를 차지한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보고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침범 >도로통행구분(인도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지금까지 이륜차의 무질서한 위반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한다. 아울러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무등록 이륜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통행 등 교통위반행위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시 자동차관리법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행위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공적인 도감사위원장 내달 임명 전망 도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 수행 능력 검증 신중”

현재 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다음달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5일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임기(3년)가 끝남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신임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여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나가면 후보 개인신상이 다

털리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있더라도 지원을 기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부동의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도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청문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요목

###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요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 한림종묘

010-3690-2453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요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요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